

2011년 노사관계의 불확실성

이 장 원*

2011년 노사관계의 진행과정은 불확실성의 연속일 것으로 전망된다. 노조법 재개정을 투쟁으로 관철하겠다는 노동운동, 복수노조의 시행을 앞두고 긴장국면에 들어간 사업장들, 사내하도급 노동관련 분쟁, 뛰는 물가로 인해 촉발되고 있는 임금인상 요구 등등 어느 하나도 만만하지 않은 이슈들이 상반기 노사관계 지형을 구축하고 있다.

이런 이슈들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풀어나갈 능력이 노사정 주체들에게 있을 수 있겠지만 더 우려스러운 것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2011년 노사관계가 급격한 정치화 과정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따라서 합리적 해법에 기대기보다는 정치적 특질에 따라 노사관계 이슈들이 과대포장을 거쳐 갈등구조로 빠져들 수 있다는 점이다.

현 단계에서 2011년 노사관계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노사관계의 장점과 약점을 알고 환경요인 중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SWOT기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최근 우리 노사관계의 장점요인은 다음과 같다. 타임오프제의 성공적 정착과정을 거치면서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경험을 축적했다. 대형분규나 불법파업이 감소하면서 게임의 법칙을 중시하는 관행이 강화되었다. 합리적인 노동운동의 성장으로 이념적 운동의 한계에 대한 반성이 나타났다.

다음으로 우리 노사관계의 약점 요인도 주의해야 한다. 복수노조 도입단계에서 노노간, 노사간 갈등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사내하도급 노동에 대한 법적 판단을 넘어서 이를 현실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는 노사관계상의 합의나 협의 역량이 극히 취약하다. 노동운동 리더십의 교체로 인한 운동 노선상의 변화가 기존 노사관계에 도전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한편 올해 우리 노사관계 외부환경 중 불안한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세계경제가 여전히 극심한 파동을 보이고 있고 고물가 및 고유가 위기까지 더해 경제환경이 전반적으로 불안하다. 현 정부의 집권 후반기 국면과 총선 및 대선 정국 전개과정이 노사관계의 정치화를 촉진할 가능성이 많다. 최근 복지국가 논쟁에서 보듯이 고용불안 또는 일자리

* 한국노동연구원 노사정책연구본부장(cwlee@kli.re.kr).

기회의 제한이 정치적 이념갈등으로 전화될 가능성이 높아 차분한 노동정책적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환경적으로 우리 노사관계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요인이 될 수 있는 것도 많다. 우선 우리 기간산업의 중추를 이루는 인력들이 고령화되면서 미래사회의 국가적 과제 가 되고 있지만, 반대로 현재의 국면은 우리 산업 발전단계에서 가장 성숙하고 안정적인 인력의 품질을 보유한 상태라 급격하거나 갈등조장적인 이념에 경도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복수노조 도입과정에서 예견되는 갈등비용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자정적 규율이 산업현장에서 자리잡을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요소이다. 아울러 노사민정이 합심하여 이룬 지난 경제위기 극복의 경험은 당면한 노사관계 현안을 타개하기 위한 노사정간 협조행동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요인이다.

올해 노사관계가 비록 전망조차 어려운 상황이지만 노사관계에서 주체들 간 공정한 행동질서를 확립하고 일자리를 위한 건전한 연합전선을 형성하겠다는 최소한의 미래지향적 목표를 공유하고 우리 노사관계의 장점을 더 개발하고 약점은 유의하면서 노사관계의 불확실성을 줄여나가는 자세가 요청된다.

나아가 갈등조장형 노사관계를 청산하고 가치창조형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노사관계 선진화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한다면, 올해 국면마다 돌출할 수 있는 악재들에도 불구하고 노사관계의 진일보를 위한 걸음을 잊지 말기를 노사정 주체들에게 당부한다.

KCL